

해외연구동향 : 직업위세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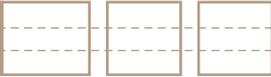
- 직업위세 연구의 패러다임과 균열 -

장흥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직업위세 연구의 의의

직업위세(occupational prestige)는 사회학계에서 오랜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본래 사회학이 집합적 사회현상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데서 기인한다. 직업(occupation)은 일자리(job)보다 상위의 추상적 범주이다. 일자리(job)가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뜻하는 데 비해, 직업(occupation)은 “유사한 일자리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상적인 범주”이다 (Hauser and Warren, 1997:180).

직업위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분화 및 불평등에 대한 연구 영역에 속한다. 이는 넓게는 직업을 매개로 한 사회 계급 또는 계층과 같은 보다 광범한 사회의 집단적 위계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며, 좁게는 직업 그 자체가 위계적으로 질서 지워진 모습에 대한 관심과 직결된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접근은 크게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접근과 직업 위세 접근으로 나뉜다. 전자는 직업 집단의 소득 수준이나 권력의 양 등을 통해 객관적 지위를 파악하는 것이고, 후자는 직업의 사회적 위계를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에 대한 인식 정도 또는 평가”(Broom and Selznick, 1973:174~175)로 측정하는 것이다.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위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있는 이래 직업위세 연구는 수십년 동안 관련 연구자 집단 내에 일종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었고, 그 패러다임에 입각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 직업위세 조사연구의 태동과 패러다임의 형성

Hauser(1982)가 직업위세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시계열적인 검토를 토대로 미국인들 사이에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직업에 대한 위세 서열 인식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직업위세와 관련된 문헌이나 단편적인 조사 자료들은 20세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업위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1947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해에 노쓰와 하트(North and Hatt)의 주도하에 미국의 전국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 NORC)가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체계적인 직업위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업위세 연구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된 것은, NORC가 1947년의 조사와 동일한 반복조사를 1963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Hodge, Siegel and Rossi(1966)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부터이다. 그들은 1947년의 1차 조사와 1963년의 2차 조사 시기 사이에 16년이란 세월이 놓여져 있고 트루먼 정부와 케네디 정부를 거치면서 커다란 사회 변동이 있었으리라는 직관과는 정반대로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인들의 직업위세 서열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이례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시기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는 무려 0.99에 이를 정도로 거의 일치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이후 사회 불평등 이론이나 일과 직업, 사회이동 등에 대한 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직업적 층화(occupational stratification)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결과들이 속출했으며 이는 당시의 구조기능주의 이론, 산업사회론과 일정하게 조응하였다.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사회학자들은 마치 “직업지위의 자연적 질서(natural status ordering of occupations)가 존재하며 대중은 이 질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다(Goyder, 2005:2). 직업위세에 대한 평정은 인종 집단별로도, 성별로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Siegel, 1970; Bose and Rossi, 1983), 산업화된 국가들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Haller and Bills, 1979)는 연구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속속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백미는 Treiman(1977)의 연구였다. 그는 직업위세 인식의 시계열적 고정성 논의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Treiman은 55개 국가의 직업위세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간에도 직업위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유명한 표준국제직업위세척도(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 SIOPS)를 개발하였다. 그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은 구미 선진국과 개도국, 유럽대륙과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등 사실상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유형의 국가를 망라한 것이었다. Treiman으로 인해 이제 직업위세 서열은 마치 시간적으로는 물론 공간적으로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확정되었다. 직업위세는 초시간적이며 초공간적인 불변의 존재로 격상되었다. 마침내 직업위세의 물신(fetish of occupational prestige)이 완성된 것이다.

■ 직업위세 연구 패러다임의 균열

1989년 NORC는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 GSS)의 부가조사로 직업위세 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이전 두 차례의 조사와 동일한 것이었다. 1989년 조사 결과를 계기로 직업위세의 안정성과 동학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 Nakao and Treas(1994)는 직업위세 위계상에 있어 상당한 동요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NORC의 1989년 직업위세 조사 데이터를 이전 두 시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NORC 1947년과 1963년 직업위세 사이의 상관계수는 .99였던 데 반해 1963년과 1989

년 직업위세 평정간 상관관계는 .97로 약간 낮아졌다. 그들은 지난 25년간 적지 않은 직업들의 위세가 변했으며 특히 1960년대에 직업위세 점수가 낮았던 직업들의 위세점수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체적으로는 직업위세 서열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그들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 속에 있으면서도 기존 패러다임의 균열 징후를 보여준 것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들면서 비록 종래의 패러다임을 와해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의 직업위세 연구 패러다임과 다른 시각에서의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몇몇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enks, Perman, and Rainwater(1988)는 측정 단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종래의 던컨사회경제지수(Duncan Socioeconomic Index : SEI) 및 직업위세 척도와 같은 직업지위 측정도구들이 일자리(job)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면서 일의 조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직업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복합적인 지수(index of job desirability : JID)를 개발하였다.

Hauser and Warren(1997)은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직업위세 등에 대한 방대한 문헌 및 이론적 검토 위에서, 1990년 미국 센서스 직업정보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경제적 직업지수와 직업위세지수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조사한 끝에, 많은 일상적인 직업들에 있어서 직업위세, 교육수준, 소득수준 사이에 전형적인 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하면서, 이제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을 위한 복합적 지수들이 쓸모없는 낡은 것이 되었다고 결론짓는다.

Goyder(2005)는 직업위세의 역사적 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Kitchener-Waterloo 지역에서 수집된 두 시점(1975년과 200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직업위세 분포의 모양이 종래의 지배적인 가설이었던 직업위세 서열의 안정성을 지지하지 않으며, 또한 1975년 이후의 역사적인 변동은 그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는 직업위세 분포는 이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순서도 두드러지게 바뀌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 평가와 향후의 전망

앞에서 우리는 직업위세 조사 및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직업위세 연구는 나름의 경향성을 보여왔으며 근래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직업위세 평정의 시간적·공간적 일관성을 지지하는 논의들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Treiman의 표준국제직업위세척도(SIOPS)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직업위세 평정의 시공간적 고정성 가설에 도전하는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면서 직업위세를 상수로 간주하던 기존 패러다임에 일정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조사분석 방법론의 발전에 힘입은 바도 적지 않지만, 1980년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1970년대까지는 다소의 굴곡은 있었지만 이른바 '전후의 황금 시기'로 불릴 정도로 서구 자본주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던 시기였던 반면, 1980년대 이후로는 정보통신기술 혁신,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체계상의 변화가 수반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직업위세 평정의 고정 불변성이라는 종래 패러다임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업위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확실하게 서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에서는 직업위세 평정의 고정성 가설에 입각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들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여전히 진행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직업위세 척도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조사연구들이 진행된다. 큰 흐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직업위세 조사연구 영역에 있어 조사분석 방법론의 정교화와 함께 시계열적 변화 여부 및 국가간 차이 여부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고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밝혀내려는 데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Bose, Christine E., and Peter H. Rossi(1983), “Prestige Standings of Occupations as affected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pp.316~339,
- Broom, L., and P. Selznick(1973), *Sociology*(5th ed.),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Goyder, J. (2005). “The Dynamics of Occupational Prestige: 1975–2000,” *Th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42(1). pp.1~23.
- Haller, Archibald O., and David Bills(1979),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mparative Sociology* 8, pp.721~734.
- Hauser, Robert, M., and John Robert Warren(1997), “Socioeconomic Indexes for Occupations: A Review, Update, and Critique,” in *Sociological Methodology* 1997, Vol.27, pp.177~298. Cambridge:Blackwell Publishers.
- Hauser, Robert, M.(1982). “Occupational Status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Historical Methods* 15, pp. 111~126.
- Hodge, R. W., Siegel P. M., and P. H. Rossi(1966), “Occupational Prestige in the United States:1925–1963,” In *Class, Status, and Power: Social Stratific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2nd ed. R. Bendix an S. M. Lipset(eds.), pp.322~334. New York: Free Press.
- Jenks, Christopher S., Lauri Peman, and Lee Rainwater(1988), “What Is a Good Job? A New Measure of Labor Market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pp.1322~1357.
- Nakao, Keiko, and Judith Treas(1994), “Updating Occupational Prestige and Socioeconomic Scores: How the New Measures Measure Up,” in *Sociological Methodology* 1994, edited by Peter V. Marsden, pp.1~72. Cambridge:Blackwell Publishers.
- Siegel, Paul M.(1970), “Occupational Prestige in the Negro Subculture,” *Sociological Inquiry* 40, pp.156~171.
- Treiman, Donald J(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